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6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2026~2027 CL4 초안 유출, 청정산업계획 관련 계획 공개(6.23)

- 호라이즌 유럽 2026~2027년 워크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, 집행위는 청정산업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각 2,000~2,500만 유로 대규모 공모를 진행할 계획. 공모는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CUS), 생산 과정의 청정에너지 활용, 생산 공정의 순환성 및 자원 효율성 등 세 가지 기술 분야에 초점
- 클러스터 4의 기존 공모 구조도 일부 개편되어, 글로벌 산업 리더십과 원자재 관련 도달목표(destination)가 통합되어 ‘유럽 내 재료 및 생산 리더십’이라는 새 도달목표로 변경됨

○ 유럽 연구기관, 집행위가 MSCA의 방향성을 정한다고 우려(6.24)

- 유럽 연구기관들은 집행위가 마리퀴리 프로그램(MSCA)의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, 연구자들의 연구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음
- MSCA 펀딩 방향의 변화는 지난 5월 초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해외과학자 유치를 위해 MSCA 프로그램 확대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한 데서 비롯
- 공동 성명에서 기관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도입되면 세대 양성과 우수성 중심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

○ 유럽 항공 분야, 연구혁신 예산 확대 촉구(6.19)

- 유럽의 항공 분야 민관협력파트너십은 EU가 글로벌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 부문 혁신 예산 확대를 촉구
- 집행위에 2028~2034년 동안 연구혁신·시장진입을 위해 EU 자금 225억 유로 투자를 요청. 민간 부문과 회원국의 추가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6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

○ (기타) ▲FP10/호라이즌 유럽명칭 유지 가능성 증대(6.19) ▲ERC, EU의 독립 상설 기구 전환 추진(6.19) ▲G7 정상 AI 및 양자기술 연구 추진을 위한 새 의제 발표(6.19)